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2)

- 공주시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공주시(公州市)는 백제시대 웅진(熊津)이었다. 웅진은 63년간 백제의 옛 수도였다. 백제가 망한 뒤에는 당나라가 한때 이곳에 웅진도독부를 두었다. 통일신라 시기인 신문왕 6년(686) 웅천주(熊川州)를 설치하였다가, 경덕왕 16년(757) 12월에 전국 9주의 이름을 모두 고칠 때 웅주(熊州)로 개칭하였고, 그 후에는 웅천주와 웅주가 함께 사용되었다.

웅주는 고려 초기인 태조 23년(940)에 공주(公州)로 개칭되었다. 웅주가 공주로 개칭된 이유에 대해서는 ‘곰의 고을’ 즉 ‘곰[熊]주’가 공주로 아화(雅化)되었다는 설과 공산성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한자의 ‘公’을 닮았기에 공주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공주는 고려 초기인 성종 2년(983)에 전국에 12목을 설치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공주목이 되어 목사(牧使)라는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종 9년(1018)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지주사(知州事)가 파견되다가, 충혜왕 2년(1341)에 원나라 평장(平章)인 활활적(闊闊赤)의 처 경화옹주(敬和翁主)의 외향이라 하여 다시 공주목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정3품의 목사가 파견되는 공주목으로 영역도 광활하여 영조때의 경우 26개면 207개리를 관할했는데, 여기에는 오늘날의 세종시[금남면, 장군면 등], 대전시[유성, 탄방동], 부여군의 일부까지도 포함하였다.

1895년에는 지방제도 개편으로 전국의 모든 고을을 군으로 통일하면서 공주목이 공주군으로 개칭되었으며, 전국의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를 설치하게 되자 충청도가 폐지되고 공주부가 신설되면서 공주부관찰사가 인근 27개군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1년 4개월이 지난 1896년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로 편제되면서 옛 충청도 영역이 남·북도로 나뉘게 되자, 공주군은 전결(田結) 면적에 따라 1등군~4등군으로 편제되는 제도에 의해 전결 면적 7천결 이상 1만결 이하의 1등군으로 편제되어 충청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1909년에는 탄동 현내 천내 산내 구죽 유등천 등 6개면이 회덕군으로, 양야리 명탄 등 2개면이 연기군으로 이관되면서, 공주군의 관할구역이 축소되었으며, 1973년에는 장기면 2개리와 반포면 3개리가 연기군에 이관되었고, 1993년에는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일부가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로 이관되었다. 공주는 1986년에 공주읍이 공주시로 승격되면서 공주시와 공주군으로 분리되었는데, 1995년에 공주시와 공주군이 도농복합시로 통합되면서 다시 공주시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공주시 장기면의 대부분과 의당면·반포면의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었다.